

# “카카오, 경쟁압력 부족·책임소홀 독점남용 막고 무분별 M&A 차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모든 기업, 공정경쟁 기반내서  
역동·창의적 활동 뒷받침 주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가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면서 자사우대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별도의 심사 지침을 연내에 새로 만들고, 무분별한 M&A를 차단하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기업들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 사태를 언급하면서 “그간 플랫폼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면서도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연내 ‘온라인 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무분별한 M&A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한다.

한 위원장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제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 한다”면서 그와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자율규제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법제화를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적 장치와 공적 규율의 경계가 어디나라는 것이 항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의 정도, 수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국회와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행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공시항목·주기도 조정하는 등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개편안을 마련해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연말까지 개편안 확정 후 내년부터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사익편취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위반이 되는 ‘부당한 이익제공’, 법 적용이 배제되는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도 내년 상반기 중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은행지주 CEO 투명하게 선임 내부통제 체계 대폭 강화해야”

금감원장-금융지주 이사회 간담회  
“3회에 경제·금융시장 충격 가시화  
대손충당금 적립 등 위기 대비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승계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BNK·DGB·JB 등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것은 2019년 5월 이후 3년 만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핵심축인 이사회와 경영진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구성·선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은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연초·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CEO가 많다.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임기가 오는 12월말 종료된다. 내년 3월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 원장은 “사외이사가 특정 직군이거나 그룹에 편중되지 않게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외이사 임기도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겹치지 않게 하여 이사회가 안정적이면서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 등 금융사고가 연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은행지주 그룹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지주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경영진에만 맡겨 놓으면 성과 우선주의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이사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해 경제·금융시장의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고 내년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지주그룹이 위기 상황에서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관리, 자금조달·운용 측면에서 위기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의 디지털 전환 확산과 기후 변화 등 새로운 금융환경은 은행지주그룹에게 기회이자 위기”라며 “이사회가 은행지주그룹의 미래 경영전략 수립과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FTX 파산·유동성 문제 등 ‘코인 악재’

고객자금 인출 대비 ‘돌려막기’ 의혹  
크립토닷컴 CRO 하루새 28% 급락  
FTX 문제에 FTT ‘거래지원 종료’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3~4% 하락  
컴투스·비엔트 등 관련 증시 맥 못췌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의 여파가 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FTX 외에도 일부 거래소에서 유동성 문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들과 연관된 코인뿐 아니라 관련 증시 종목 등이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크립토닷컴이 발행한 가상화폐 크로노스(CRO)는 최근 24시간 전 대비 28%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크로노스를 취급하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총 4곳이다. 다만 아직까지 크로노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래유 의종목’ 지정 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크립토닷컴은 거래량 기준 글로벌

15위권의 가상화폐 거래소다. 크립토닷컴의 경우 앞선 지난해 미국프로농구(NBA) LA레이커스와 LA클리퍼스 등이 홈 경기장의 네이밍 사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의 명칭을 구입해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변경하면서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에 나선 바 있다.

크로노스 급락세의 배경은 최근 크립토닷컴 계좌에서 32만개의 이더리움이 다른 거래소인 게이트아이오(Gate.io)로 송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최근 각 거래소들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면서 고객 자금 인출에 대비해 서로 간에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는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크립토닷컴의 최고경영자(CEO)인 크리스 마찰렉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실수로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됐다”며 “4억달러의 이더리움을 회수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더리움 32만개는 오프라인 지갑인 ‘콜드월렛’으로 옮길 예정이었지만, 외부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크립토닷컴은 비트코인(5만3024개), 이더리

움(39만1564개) 등의 보유 사실을 공개하면서, 거래소가 보유한 지급 주소 목록을 공개하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앞서 유동성 위기로 파산을 신청한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발행한 FTT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소들이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거래를 지원해왔다. 이들 거래소는 최근 FTX 내부에 운영문제를 발견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FTX의 파산 여파로 가상자산 대부분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업비트에 따르면 전일대비 비트코인은 3%, 이더리움 4%, 리플 3% 등 하락했으며, 알트코인 중에서는 상장 코인 중 2개를 제외한 대부분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다. FTX에 자체 가상자산 C2X를 상장한 컴투스는 이날에만 13% 이상 급락하면서 장중 한때 52주 신저가인 6만1500원을 기록했다. /이영석 기자 ysl@

# 빅데이터·AI 활용 시니어케어 서비스 개발

» 1면 ‘고령화에 변화하는’서 계속

케어푸드 사업에 적극적인 회사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다. 국내에 처음으로 연화식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며,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양성분에 민감한 만성질환자를 위해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 유형을 신설함에 따라 당노환자용 식단형 식품 개발에 착수했다. 자체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그리팅’을 운영해 의정기 구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워홈도 전국 요양원과 병원, 어린이집을 비롯한 B2B 시장에 연화식을 공급해 왔으며 이후 연화 간편식을 선보이는 등 생애주기별 케어푸드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

앞서 아워홈은 ‘2016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용 저작용이, 저저기능개선 식품 개발’ 연구에 참여해 2017년 업계 최초로 육류, 떡류, 견과류의 물성을 조절하는 기술 3건을 특허 출원한 바 있다.

CJ프레시웨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니어 케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업 원더플랫폼과 ‘시니어 영양 증진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해당 플랫폼의 AI 돌봄 서비스가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시니어 맞춤형 영양 식단을 제공하는 ‘헬씨누리’의 케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헬씨누리는 CJ프레시웨이가 2015년 출범한 시니어 토탈 케어 솔루션 브랜드로 영양 식단 제공, 시니어 서비스 컨설팅, 사회공헌사업 등을 아우르고 있다. CJ프레시웨이의 헬씨누리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수도권 노인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CJ프레시웨이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472곳 가운데 107곳의 식자재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절벽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생아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업보다는 고령층 인구를 겨냥한 사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분유 대신 단백질, 케어푸드 사업에 주력하는 것은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